

2013년도
제50대 신과대학 선거
정책자료집



신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

**2013년도
제50대 신과대학 선거
정책자료집**



신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

목 차

1. 학생회장

다양한 목소리, 화합의 우리 <하모니>

2. 여학생회장

다른 너와 내가 만나 <이음>

3. 새내기학생회장

다양한 목소리, 화합의 우리

<하모니>



<목 차>

출마의 글	-----	3
정후보 약력	-----	4
부후보 약력	-----	5
Harmony 설명	-----	6
'이구동성' 설명	-----	7
1. 송도캠퍼스	-----	8
2. 연신아고라	-----	10
3. 팀제 운영방식	-----	11
4. Weekly 연신	-----	12
세부 공약들 1	-----	13
세부 공약들 2	-----	14
정책자료집을 마치며	-----	16

<출마의 글>

안녕하세요. 다양한 목소리 화합의 우리!

<Harmony> 선본의 정후보 이재준, 부후보 박우진입니다.

재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두 선본이었던 저희가 이번 재선에 함께 출마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작년 선거 때부터 저희가 이루고자 했던 화합과 통합의 가치를 이루는데 노력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두 사람 모두 지난 선거 때부터 계속 화합에 대해 고민했었고 이제는 두 사람이 힘을 모아 함께 그 가치를 이루어 가야할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희 두사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저희와 함께 고민해주시고 노력해주신다면 신대의 화합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선거에 출마하기 전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시는 선본원분들과 다른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만큼 앞으로 신과대학 학우 한 분, 한 분의 목소리 또한 놓치지 않도록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시고 지켜봐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에 부끄럽지 않은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후보 약력>



정후보 : 이재준 (신학3)

-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신학과 11학번 입학
- 군종사관후보생
- 2012년도 2학기 연세신학학술연구회 회장
-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48대 학생회 <리폼> 기획국원
- 은평 은현감리교회 어린이 성가대 담당
- 한국 합창 지휘 아카데미 22기

<부후보 약력>



부후보 : 박우진 (신학3)

-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신학과 11학번 입학
- 2012년도 알파와 오메가 리더
- 기획채플 <Recover & Praise>, 콘서트 <Faithbook & LTE> 총괄
-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48대 학생회 <리폼> 재정국원
- YDMC 전공소개알리미 5기, 신학과 대표
- 2011, 2012 신앙수련회 찬양팀

<Harmony / 기조 설명>

하모니 : [명사] 일정한 법칙에 따른 화음의 연결.

서로 다른 악기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만나면
분명히 흐트러지고 어울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어우러지는 선율을 노래하면,
웅장하고 큰 음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세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만난 우리이지만, 각자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낼 수 있다면
분명 연세신학은 더 아름다운 화합의 소리가 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선본 <하모니>는 그러한 생각 아래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고,
저희가 준비한 공약도 그 기조 아래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시고 큰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자료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구동성(異口同聲) : [명사] 서로 다른 입을 모아, 같은 소리를 내다.

다들 이 (異) : 새로운 캠퍼스인 '송도캠퍼스'의 정책을 통해 새내기들도 신과
대학 학생으로써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입 구 (口) : '연신 아고라'를 통해 우리의 많은 목소리가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동 (同) : '팀제 운영방식'을 통해 다양한 행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성 (聲) : 'Weekly 연신'을 통해 학생회에서 혹은 학교에서 알리는
중요한 사항을 알려겠습니다.

연세신학 내에서의 서로 다른 목소리들을 모아 어우를 수 있는
화합의 학생회.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연세신학의 새로운 문화를 이루어가는
소통의 학생회.



<하모니>에서 펼칠 중요한 핵심 4대 공약입니다.

1. **巽(다를 이)** 다른 두 개를 하나로, 송도캠퍼스

왜?

연세대학교는 2013년도부터 새내기들이 송도캠퍼스로 이전하여 기숙사 생활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한 학기를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신과대학 새내기들은 2013년에는 2학기에, 2014년부터는 한 해씩 송도에서 머물며 신촌캠퍼스와는 다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에 선출되는 50대 학생회에서는 이 초석을 다져서 앞으로의 이원화된 캠퍼스 생활에 학생회와 학생사회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송도캠퍼스에서 생활하는 신과대학 새내기들도 신촌에 있는 학우들과 마찬가지로 행사들에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신촌에 있는 학우들과 같은 지위의 학생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어떻게?

1) 2013년도에는 신과대학 13학번 새내기들이 2학기에만 이동하기 때문에 연고전과 신앙수련회를 통해 선배들과 만남과 교류의 장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 <하모니>에서는 '신촌 Coming Day'를 2학기에 한 번 기획하여 선배들과 새내기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재 신과대학 학생회칙은 송도캠퍼스 실정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새내기들은 회칙상 신촌캠퍼스의 학우와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총회를 통해 송도캠퍼스에 거주하는 새내기들의 권리를 회칙으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권리가 잘 지켜지도록 신과대학 학생회실을 송도캠퍼스에서도 만들어서 신과대의 자치공간과 학생 사회의 일을 처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신과대학 동아리들과 동행하겠습니다. 새내기들이 이전함에 따라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신과대 학대운영위원회와 그 밖 여러 장을 통하여 동아리 장들과 이 부분에 대하여 끊임없이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새내기 학생회장과, 새로 꾸려지는 학생회의 새내기 집행부원들과도 잘 연계하여 그 곳에서 자치를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 □(입 구) 모두가 말하는, 연신아고라

'연신아고라'는 학부생, 교수, 교직원 간의 열린 대화를 할 수 있는 장(場)을 말합니다.



왜? 그동안 신과대학에는 학부생, 교수, 교직원 등 신과대학의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신과대학과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해 대화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생, 교수, 교직원간의 소통이 부재하여 서로간의 의견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에 '연신아고라'라고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신과대학의 구성원인 학부생, 교수, 교직원간의 일정 조율을 통해 약 한 학기에 한번 연신아고라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연신아고라는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해진 기본논의주제와 자유주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신아고라는 일회성 의견 교환의 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연신아고라를 정기적이고 상설화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모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연신아고라가 하나의 소통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연세 신학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의 장으로써 만들 것입니다.

- 연신아고라에서 논의될 수 사항들 (예시)

1. 신학실천 봉사활동을 꼭 지정기관에서만 해야 하는가?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기존기관은 봉사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는가?
2.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신대수업들을 정기적으로 개설 할 수는 없는가?

3. 同(한가지 동) 하나되어 일하는, 팀제운영방식

왜? 축제, 연고전 등 신과대학 행사 진행에 있어서 학생회 외에 전문팀의 부재로 인해 갑작스러운 일이나 별개의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유연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 '하모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과대학 각종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학생회 외의 협력팀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축제, 연고전 등 전반적인 학교 행사 일정의 약 1달 전에 공고를 통하여 다양한 학우들로 구성된 협력팀이 학생회와 함께 행사 준비와 진행을 함께 하게 됩니다.

- 협력팀 (예시)

대동제 축제 카페 및 주점 운영 협력팀

- 운영계획

- 대동제 한 달 전에 협력팀 모집
- > 다양한 학우들로 구성된 협력팀을 구성 및 팀장 선출
- > 학생회와 연계하여 대동제 관련 회의를 진행
- > 학생회와 협력팀이 전반적인 행사를 준비 및 진행



4. 聲(소리 성) 소리내어 알리는 Weekly 연신

왜? 그동안 신과대학 학생들은 학생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세신학 클럽에 올라오는 중요한 사항들도 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려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클럽은 현재 방문자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 페이스북은 회원가입을 해야만 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매주 수요일 신학실천 전에 <Weekly 연신>이라는 자보 형식을 통해 소식을 알리고자 합니다. 학생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학우 여러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학생회에서 중요한 사항도 정보 소외 없이 모든 연세신학 학우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 한 주간 학교 내 중요한 일정들
- 학생회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진행 보고
- 중요한 학사일정
- '기획단' 알림, 모집
- 신학실천 그룹 모임 안내
- 신과대학 사무실에서 학생들에게 알리는 사항들
- 총학생회 차원에서 중요한 공지사항
-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요한 공지사항
- 신과대운영위원회, 신과대학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요한 공지사항
- 그 밖에 학교생활의 Tip과 연세신학 내 소모임 광고 등을 실겠습니다.

핵심 공약 뿐만이 아니라 세부적인 복지 공약을 통해 <하모니>는 보다 나은 신과대학 생활을 약속하겠습니다.

1. 신과대 운영위원회, 신과대 확대운영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의 속기록을 직접 활자로 인쇄하여 게시판에 비치해두겠습니다.

신과대 운영위원회와 신과대 확대운영위원회는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직선제 대표와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신과대 동아리 대표들이 모여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고, 신과대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기존에는 속기록의 형태가 클럽에 올라왔지만, 많은 관심을 일으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의의 속기를 게시판에 게시하여 학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결이 되어 가는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리에 모인 의결기구 대표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회의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신학관 도서관의 플러그를 보수하여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관 지하 2층에 있는 연세신학 도서관은 플러그가 부착되어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나 기타 전자기기를 활용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플러그가 부착된 책상들이 생각보다 제대로 유지, 보수되지 않아 충전이나 노트북 연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생회 차원에서 앞장서서 작동하지 않는 플러그를 수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연합신학대학원과 사무실에 협조를 구하여서 연세신학 학우 여러분의 편리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과대 자치 강의실 관리를 확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치 강의실은 신과대 학우 여러분들이 신과대 사무실을 통하지 않더라도 같이 공부를 하거나 동아리 차원의 세미나가 진행될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는 지하 1층에 있는 지하 102호입니다. 이 강의실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필요하다면 자치 강의실을 더 늘려서 학우 여러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여학생회, 편입생협의회, 예비역학생협의회, 새내기회 등 신과대 운영 위원회의 기구들을 세우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과대에서 운영 기구가 있는 네 가지 기구는 기존에 효과적인 참여나 목소리를 내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학생회와는 달리 집행부원이 많지 않아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학생회에서 각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들을 살리고 사업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5. 신과대학 세칙에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선거에서 출마에 대하여 문제가 많았던 것 기억하시나요? 이것은 우리 신과대학 회칙과 세칙이 현재 2013년도를 모두 담아내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하모니> 선본은 지난 선거 때 학우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 대로 세칙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총회를 통해 세칙에서 빠진 부분, 추가해야 할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를 통해 51대 선거와 나아가 신과대 학우 여러분들이 회칙이나 세칙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 다음학기 수업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신과대학에서 열리는 많은 수업들은 비정기적으로 열린다는 점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신과대 수업을 개설하는 데 있어서 수업을 받는 주체인 신과대 학우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기적 개설을 시정하고, 학생들의 수업권 참여를 위하여 저희 <하모니> 선본은 당선 직후 2학기 수업과, 2014년 1학기 수업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수업이 모인다면 '연신 아고라' 등의 장을 통하여 교수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모니>의 복지 공약들과 함께 2013년,
더 나은 신과대학 생활을 기대해주세요!

맺음말

2013년도는 신과대학은 다른 해와는 많이 다른 해라고 생각합니다. 유례없는 선거 결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집행으로 시작된 해였습니다. 신과대학의 새로운 새내기들이 학교의 방침상 송도캠퍼스에서 한 학기 수학하는 해입니다. 전공필수 과목인 '신학실천'도 학생들의 논란 속에서 많은 것이 바뀌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 신과대학은 다른 해보다 더욱 발로 뛰고 앞장서는 학생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학생 사회의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학생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원화된 캠퍼스를 신과대의 차원에서, 나아가 연세대의 전체 학생사회를 통해 대비할 수 있는 학생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과대학 안에 있는 여러 학생들의 소리와 더 나아가 교수님과 교직원까지도 연결 할 수 있는 소통의 연결 창구가 될 수 있는 학생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과대 학우 여러분들 !

저희 선본의 후보들과 선본원들은 2012년부터 선거를 준비하면서 위의 사항에 대해 많은 사항을 논의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비록 많은 시간을 돌아 왔지만 이제 하나의 선본이 되어 저희가 오랜 시간 준비했던 것들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선본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때로는 칭찬으로, 때로는 아낌없는 비판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생회는 학생들이 없을 때 그저 일하는 기구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학생회,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학생회, 그를 통해 화합하고 즐거운 신과대학을 만들어내는 학생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공약들과 함께 2013년 더 나은 신과대학을 만들도록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6 대 신과대학 여학생회를 준비합니다.

우리 관계를 비추고, 나를 돌아보는 건
불편했던 시선들에서 벗어나
유쾌하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는 일.

자유롭게 상상하고, 나누고,
다른 음색을 가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365일 축제의 공간을
만들어 가려 합니다.



정후보
신학11 김수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학함이란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또 다른 때마다 그 감동과 의미는 다르겠지만
감동의 사이사이마다 우리 옆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이음'이 생각하는 신학함이란,
내 옆에 나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즐겁지는 않습니다.

원치 않지만 나를 이루는 시선들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규정하며 쉽게 상처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서로의 인생을 알아가며
그 외연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이야기로 겹겹히 쌓인 신학이 진정 빛을 발한다는 것을 경험하지요.

나를 부수며, 서로의 알을 깨며
진정한 '나'로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어렵지만 행복한 고민을 하는 '이음'의 신학입니다.



**'신학은 어쩌면 관계의 학문.
우린 참으로 가지각색이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구분법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배와 후배, 여성과 남성,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커플과 솔로, 주류와 비주류.

우리는 이러한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범한 질서들로 나와 너를 구분합니다.
이 질서들은 참 쉽고 유쾌하며 때론 낭만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를 배제하고, 위계를 만들며,
존재를 위협하는 폭력으로 다가가기도 합니다.
이는 또다시 스스로 나를 가두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상상해보았습니다.

우리 다른 음을 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숨기지 않고도 친구가 될 수는 없을까?

가지각색인 내 옆 사람을 온전하게 알고 싶다는 첫 시작으로
새롭게 우리의 질서를 가꿔 가보는 건 어떨까?

꿈꿔볼수록 더욱더 생기는 의문지점들, 고민거리들, 불편함들을
툭 터놓고 이야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소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려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부터, '나'의 생활에서부터 돌아보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폭력으로 다가갈 나의 가시들을 성찰하고자 합니다.
함께 진정한 '너'와의 소통을 어렵게 하는 다수의 기준들을
짚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대인 모두의 평등을 지향하는 여학생회지만,
강자의 논리가 아닌 약자의 눈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겠습니다.
거꾸로 보는 세상, 사소하게 여겨져 왔던 가치들로 보는 세상이
더 큰 유쾌함을 가져올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음'과 함께 자유롭게 상상하며
작은 축제들로 우리 일상을 새롭게 만들어봐요.
작은 대화들이 모이고 모여
많은 사람들이 설 수 있는 숲이 되고,
집이 되고, 하나의 동네가 된다면
우리의 시각과 문법도 더 넓게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똑딱똑딱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음공작소입니다!
이음의 약속! 앞으로 함께 열어 볼 네 가지 선물상자.

1. 여성주의 소모임 만들기

어울리기 위해서는 항상 불편해야만 했던 문화들,
툭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은 없을까?

- 이를 위한 우리의 공간, 여학생회실 활성화

365일 티파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일상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여학생회실을 기대하세요!

- 성별 구분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농구 소모임

운동은 살빼려고 하는거 아니야?
축구, 농구, 야구..
언제부턴가 우리 기억에서 잊혀진 스포츠들.
힘이 세건, 세지 않건, 빠르건, 빠르지 않건
같이 어울려서 땀 흘릴 수 있는 운동모임을 만들어봐요.

- 신과대 도시농업실험: 텃밭 공동체 만들기

효율적인, 그리고 소비적인 관계를 넘어
조금은 느리지만 자라나는 생명이 열어주는
사람이야기.
정성으로 기른 야채를 나눠먹으며
생태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요.

- 신학관의 작은교실: 숨겨진 재능을 찾아라! ✱

기타, 그림그리기,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등
대학생활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저렴한 강좌들을 개설합니다.
나의 재능도 찾고, 여러 문화를 통해
새로운 만남도 가질 수 있어요.

- 건강한 도시락 모임

저는 채식주의자인데 밥먹을데가 없어요.
나는 복학생인데 동아리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날씨 좋은 날, 북적이는 식당 말고 없을까요?
자극적인 배달음식 시켜먹기 싫어요!!
그렇다면 함께 먹어요. 어디서든,
반찬도 나누고 때때로 나눠먹을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여성주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남녀평등이 아닌 '여성주의'인가요?**

여성주의는 여성을 중심에 두고, 여성의 경험과 입장을 탐구의 대상으로 하며,
여성이 탐구의 주체가 되는데서 출발하는 하나의 인식론적/경험적 틀입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의 언어, 담론, 사고체계는
철저히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관순은 왜 '누나' 이며, 역사는 왜 'history' 일까요?

남성의 언어로 구성된 사회적 담론 체계에서는
여성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비가시화 되며,
여성은 세상을 인식하는 주체가 아닌 '남성적 시각'에 의해
타자화되는 존재로 남겨집니다.

여성주의는 여자도 군대가라, 남자도 애 낳아라, 식의
여성과 남성의 기계적인 남녀평등이 아니라
성별위계적으로 구성되어온 사회의 맥락을 온전히 이해하고,
소외되고 비가시화 되었던 여성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새로운 관점에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의 가부장적 위계질서와 권력관계 속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주목합니다.

2. 여성주의 세미나

함께 읽고, 쓰고, 생각하고, 변화하자.
옆 사람과 같이 고민하며 우리 삶을 돌아보자!

- 여성주의 정기 세미나 및 공개 세미나

여성주의적인 가치들을 학문적으로 공부해보고 싶으시다구요?
학술동아리와 연계한 공개세미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여성학 세미나를 준비하겠습니다.
여성학 초청강연, 여성영화제 관람 등 다양하고 즐거운 방법으로
배워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 여성신학 자료집 제작

여성과 이어지는 신학, 신학과 이어지는 여성.
신학과에서 열리는 다양한 여성에 관한 수업들이나
연세신학공동체를 살아가며 느끼는 신학적 고민들을
끊임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페미니즘을 다시 고민하는 지구인들

‘학내 성평등을 위한 세미나 모임, 페다고지’
다른 문화에서도 대안을 찾을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신학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문과도 이어지는 여성주의를
다양한 단과대의 친구들과 나누어 봅시다.

* 페다고지는 어떠한 단체인가요

학내 공동체 안에서 불편하게 다가오는
성별 불평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세미나 모임입니다.

페다고지는 여성주의라는 렌즈를 통해
성적 차이에 기반한 불평등을 성찰하고,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들을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한 관계맺음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페미니즘을
다시
고민하는
지구인들

페다고지



3. 신과대학 성평등 자치규약 만들기

사랑하는 우리들, 조금씩 노력하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지!

학내 성평등 자치규약은 공동체에 만연한 가부장적 문화들에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공동체를 유지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한 관계맺음을 할 수 있기 위한 시도입니다.

성평등 자치 규약을 제정하는 과정은,
학내에 만연한 성적 차이에 기반한 위계적 차별 행위들을 다시 한 번
성찰하게 하는 시간이었으며, 서로 다른 경험들과 생각들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지워버림으로써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들을
가려버리는 기존의 공동체 문화를 비판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평등 자치규약은 공동체 내에서 유지되는
남성중심성, 이성애중심주의, 비장애중심성과 같은
권력구도를 가시화하여 학내에서 마주할 수 있는 권력 관계들을
공론장으로 이끌어 내어 논의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음’은 공동체 내에서 성평등 자치규약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섬세하게 해설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자치규약이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체에서 보다 편하고, 자유로게 ‘공존’ 하기 위한
약속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4. 여성제 : 이음제

‘축제’ 하고 싶은 사람 여기 모여라!
제약없는 한마당. 상상해왔던 것들을 직접 현실로 꺼내보자.

- 돈이 오고가지 않는 프리마켓

만약 사랑과 우정이 화폐가 된다면 어떨까?
소비하기 위해 노동하는 것이 아닌
직접 우리의 관계를 위해 노동한다면?
신과대학 생활협동조합과 연계하여
모두가 행복한 대안경제를 실험해보는건 어떨까요?

- 바로 지금이 예술이다.

신과대 2층 발코니
예술로
이야기하는
모두발언대

지금 이 시간 당신에게 어린 빛과 그림자
흘러나오는 음악과 우리 함께한 역사들
이 순간 자리한 이들 모두 또다른 ‘나’ 들이다.
시,공간을 통한 무한감동프로젝트!
음악, 영상, 그림, 그리고 너와 나.

- '나 = 축제'

만들고 싶은 축제들을 후원해드립니다!

나를 맘껏 표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음’ 이 후원해드립니다. 맘 속에만 있던 톡톡튀는
아이디어들을 우리 모두의 축제 때 꺼내주세요!





신학 11 이예지

함께 고민한 이들 한마디!

"왜 여자들이 취업하려고 하지?
장애인도 애를 낳을 수 있나? 왜 노인이 사랑을 해요?
동성애자도 실연당해요? 흑인도 철학자가 될 수 있나?
(이주 노동자에게) 왜 한국에 왔나?"

이 같은 질문은 남성, 비장애인, 젊은 사람,
이성애자, 백인,
한국인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일,
혹은 용서받지 못할 욕망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질문은 묻는 자와 답하는 자 사이의
사회적 권력 관계를 반영한다." -정희진-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하는 것을 넘어 차이를
구성하는 권력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심적인 목소리는 취사 선택되어왔으나
가려지는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소수의 가려진 목소리를 이끌어내
그런 현실에 문제제기하고,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언어화하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과대 여학생회 화이팅!
같이 배워가고 생각하면서 신대 공동체에
또 하나의 활력소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여성신학을 많이 공부해보고 싶어요.
재밌는 소모임들도 함께 하며 추억과 함께
많은 생각할 거리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학 11 전지수



신학 11 한상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이보다 더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학점, 스펙, 외모, 경제력, 내가 모테솔로라는 사실 등등
있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이를 긍정하기 위해서는
작지 않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굳이 여학생회가 필요한 것은,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학생회가 교내에서든 사회 어디에서든
관계 속에서 마주하는 완고한 기준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함께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소중한 모임이
되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다른 너와 내가 만나 이어지는 공간 '이음'

신대인 여러분 모두의 상상과 시도들을 응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공간.
더 큰 낭만을 가져다 줄 작지만 큰 가치들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꿈꾸겠습니다.

청춘 - 詩 심보선

거울 속 제 얼굴에 위악의 침을 뱉고서 웃었을 때
자랑처럼 산발을 하고 그녀를 앞질러 뛰어갔을 때
분노에 북받쳐 아버지 먹살을 잡았다가 공포에 떨며 바로 놓았을 때
강 건너 모르는 사람들 뚫어지게 노려보며 술한 결심들을 남발했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을 즐겨 제발 욕해달라고 친구에게 빌었을 때
가장 자신 있는 정신의 일부를 떼어내어 완벽한 몸을 빚으려 했을 때
매일 밤 치욕을 우유처럼 벌컥벌컥 들이켜고 잠들면 꿈의 키가 쑥쑥 자랐을 때
그림자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서
그 그림자를 거느리고 일생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을 때
사랑한다는 것과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 같은 말이었을 때
솔직히 말하자면 아프지 않고 멀정한 생을 남모래 흠모했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너무 살고 싶어서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었을 때
그때 꽃피는 푸르른 봄이라는 일생에 단 한번 뿐이라는 청춘이라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내기 학생회장으로 출마하는 유들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를 지지해주셔서 13학번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책토론회에 임하면서 새내기학생회장 후보로서의 저의 마음과 다짐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13학번, 새내기들이 분파 없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조금 친한 친구가 있고, 많이 친한 친구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뚜렷해지거나, 왜곡된 형태로 발전될 경우에는 공동체 내의 불협화음이 생기고, 서로에 대한 오해가 생겨 진정한 공동체의 형성에 방해가 됩니다. 새내기들이 서로끼리 관심을 갖고, 보다 넓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우리 13학번 모두의 소중한 의견들을 경청하여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반 분위기를 주도하는 몇몇 학생들의 의견으로만 대소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때로는 수줍어서 의견개진을 두려워하는 친구들의 의견까지 따로 세심하게 듣겠습니다.

위로는 선배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고, 옆으로는 새내기들의 중의를 대변하는 새내기 학생회장이 되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